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의 전후인식과 그 전개

홍진희*

目 次

1. 들어가며
 2. 군국주의의 피해자
 3. 미점령군하의 피해자
 4. 가해자로서의 역사 인식
 5. 나오며
-

1. 들어가며

최근 『요코 이야기(원제:So far from bamboo grove)』라는 소설이 마스크에 의해 연일 논란이 되었다. 소설의 형식을 빌은 일종의 수기였던 이 책이 문제가 된 이유는, 일본의 패전 직후 한국남성이 일본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묘사함으로써 마치 한국인을 전쟁의 가해자로, 일본인을 피해자로 뒤바꿔 놓은 듯한 내용 때문이었다. 작품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자 작자인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는 「단지 ‘전쟁은 모든 사람에게, 특히 순수한 사람에게 슬픔을 주는 끔찍한 것’이란 사실을 알리려고 했을 뿐」¹⁾이라고 해명했다. 『요코 이야기』의 경우는 가해자를 한국인 남성으로 묘사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논란이 많았으나, 이처럼 전후 일본인의 문학작품에 나타나는 전쟁에 대한 피해의식과 평화주의사상의 공존에 대해서는 쉽게 공감이 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 경기대학교 강사, 일본근현대문학 전공

1) 「‘요코 이야기’ 저자 일문일답」 『중앙일보』 2007.2.3.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오에 겐자부로는 일본의 전후책임을 주장하는 소수의 양심적인 지성인으로 알려져 있는 문학자이다. 그러나 이러한 오에의 평화사상과 휴머니즘 역시, 그 출발점은 전후 피해의식 내지 약자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오에의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전후인식을 검토함으로써, 전쟁에 대한 피해의식과 가해자로서의 책임의식의 공존 양상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전쟁의 종언과 지속」에서 도리이 구니오(鳥居邦朗)²⁾는, 1955년에서 1960년 사이의 대표적인 신인문학자로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와 오에 겐자부로를 예로 들고 있다. 도리이는 「개방적이며 윤리에 얽매이지 않는 스포츠 청년과 젊은 부르조아 여성과의 직선적인 행동과 성애(性愛)」를 다룬 『태양의 계절(太陽の季節)』(1956)에 의해 이시하라가 전중(戰中) 전후(戰後)의 암울함과 연을 끊은 것에 비해, 오에는 오히려 전후문학을 지속시키는 존재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기묘한 일(奇妙な仕事)』(1957)로 문단에 데뷔한 후, 전후세대가 처한 암울한 상황을 대변하며 창작활동을 전개했던 오에의 작품 성향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사육(飼育)』(1958)·『나쁜 짝은 어릴 때 제거하라(芽むしり仔撃ち)』(1958)·『우리들의 시대(われらの時代)』(1959) 등의 작품이 태평양전쟁을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점, 오에 자신 역시 스스로를 「신전후파(新戦後派)」³⁾로 명명한 점도 위와 같은 평가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단지 이시하라와의 대조적인 입장차 뿐 아니라, 1956년 7월에 발표된 「경제백서(經濟白書)」를 통해 「이미 『전후』가 아니다(もはや『戦後』ではない)」라는 공식적인 전후와의 결별이 선언된 가운데, 오히려 「전후민주주의(戦後民主主義)」의 계승을 주장하는 오에의 입장은 그 출발부터가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전후인식이 6, 7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동시대 전후 세대들에게 공감대를 형성시키며,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⁴⁾

나아가 오에는 노벨문학상 수상 직후의 강연을 통해, 자신의 문학에 있어 가장 큰 주제중 하나는 「전후 해방감(戦後の解放感)」⁵⁾이었음을 공언한 바 있다. 작가 스스로도 전후인식을 주요 테마로 인정하는 만큼 선행연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자주 거론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와타나베 히로시(渡辺広士)의 경우 「아버지」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천황과 전쟁에 대한 오에의 이해를

2) 古林尚編 『戦後の文学』 有斐閣, 1978, pp.106-110

3) 『厳粛な綱渡り』 講談社, 1991, pp.66-68(초출: 「新・戦後派の心」 『朝日新聞』 1959.1.4.)

4) 「〈対談〉大江健三郎を求めて」 『国文学』 1997, p.19

5) 「時代から主題をあたえられた」 『日本の「私」からの手紙』 岩波書店, p.191(초출 『群像』 1973.3.)

논하였으며,⁶⁾ 마츠바라 신이치(松原新一)는 「순응주의의 거부(順応主義の拒否)」라는 표현으로 그의 전후인식을 규정하였다.⁷⁾ 이외에도 「감금상태」라는 용어로 상징되어지는 미점령하 전후세대의 절망적인 현실과 내적 갈등에 대한 견해들은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전후인식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일부 초기 작품⁸⁾에 한정되어 검토되었으며, 이후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중에는 나카무라 야스유키(中村康行)⁹⁾와 같이, 문단 데뷔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에 이르기까지의 문학 자취를 토대로 「전후민주주의」 사상에 대해 언급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오에 문학의 기저를 이루는 실존주의와 구조주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결국 전후민주주의 사상을 일괄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작자의 전후인식이 강하게 표출된 초기 작품과 「히로시마 노트」(1965), 「오키나와 노트」(1970), 그리고 1990년대 이후의 에세이와 강연집 등을 토대로 오에의 전후인식과 그 변모를 보다 거시적인 관점으로 고찰한다는 데에 의의를 둔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피해의식에서 전쟁책임론에 이르는 오에의 전후인식 전개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2. 군국주의의 피해자

오에는 1935년 1월 31일, 에히메켄(愛媛県) 오세무라(大瀬村)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유년시절, 「국민학교(國民學校)」 과정을 통해 천황제를 상징으로 한 군국주의 교육을 받게 된다. 여기에서 「국민학교」란 1941년 공포된 「국민학교령(國民學校令)」에 의해 기존의 「소학교(小學校)」를 개칭한 것으로, 「황국민(皇國民)」의 양성을 위한 일종의 전시 교육체제라 말할 수 있다.¹⁰⁾ 국민학교 제도는 패전 후인 1947년 학교교육법에 의해 소학교로 바뀌기까지 지속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오에는 초등교육을 통해 군국주의의 영향을 고스

6) 「父を復元する想像力」 『大江健三郎』 審美社, 1994

7) 『大江健三郎の世界』 講談社, 1967

8) 구로코 가즈오(黒子一夫)의 『大江健三郎—森の思想と生き方の原理』 (彩流社, 1989) 와 잇슈 다카오(一修孝夫)의 『大江健三郎—その文学世界と背景』 (和泉書院, 1997) 등 일반적으로 『기묘한 일(奇妙な仕事)』로 문단 데뷔한 1957년부터 장애자 아들이 탄생한 1963년 전후의 작품을 초기작품으로 구분한다.

9) 『大江健三郎—文学の奇跡』 新日本出版社, 1995

10) 朝尾直弘他 『日本史辞典』 角川書店, 1996

란히 받게 된 세대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시의 군국주의는 천황의 위엄과 권위를 강화하는데 온 힘을 쏟았는데, 소년 오에에게 있어 그러한 천황의 존재는 공포의 대상으로 자리잡는다. 다음의 인용문은 전쟁 중과 패전 직후에 있었던 그의 체험을 기록한 글이다.

이 신으로서의 천황이, 우리 어린이들의 매일의 생활에 리얼한 생동감을 가진 위협마저 느끼게 했다. —어떤 이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최고의 행복이었을지도 모르지만—교사가 우리들에게 묻는다. —너희들, 천황폐하가 죽으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건가? 정답은, —죽습니다. 할복자살해서 죽습니다! 나는 곧바로 이 정해진 말을 외치지 못해, 교사에게 두들겨 맞은 적이 있다. 나의 주저함은 다음과 같은 어리석은 자문자답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같이 외진 섬의 숲으로 둘러싸인 산골마을 소년인 나를 어쩌서 천황이 알고 있을 것이란 말인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지저분한 애송이가 할복자살해서 죽을 것을 폐하는 명하신단 말인가?(「天皇が人間の声で話した日」『日本の「私」からの手紙』1996, pp.27-28)

어느 날, 나는 선생님께 여쭙보았다. 천황제가 폐지된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나를 후려 치고는 쓰러져 넘어진 내 등을 숨이 막힐 정도로 발로 걷어찼다. 그리고 내 어머니를 교무실로 불러서는, 정말 긴 시간을 야단 쳤던 것이다.(「戦後世代のイメージ」『厳粛な綱渡り』講談社, p.24 (초출: 『週間朝日』1959.1.4.-2.22.))¹¹⁾

폭력이란 일반적으로 약자에 대한 강자의 행위로서, 신체적으로 약한 존재에게 가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국가 시스템의 실행자인 교사와 학생인 오에와의 사이에는 권력의 종적(縱的)구조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년 오에는 교사의 폭력을 통해 천황의 위엄과 군국주의의 공포를 체험하게 된다. 또한 그가 「시코쿠(四国)」라는 지방의 산간마을 출신이라는 사실은 전후인식에 있어 또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패전 직후 당시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미국인 저널리스트의 다음과 같은 견해를 살펴보자.

특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일상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천황숭배」였다. 이것은 일본 대도시만을 방문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동경은 완전히 변해가고 있었다. 일본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는 곳은 지방 소도시와 시골마을이었다. 일본군 대부분은 대도시가 아닌 지방 소도시와 시골마을로부터

11) * 본문의 모든 인용문은 필자의 줄역에 의함.

전장으로 강제 송출되었고, 가난한 농민과 어부의 자식들이었다.¹²⁾

오에가 전쟁 중에 어린 소년이었고 산간마을 출신이었다는 사실은, 군국주의에 의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했음을 추측하게 하는 부분이다. 패전 후 그는 「신제중학교(新制中学校)」를 통해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을 받게 되고, 「전후민주주의」의 기본 축을 이루는 「전쟁 포기」와 「주권재민」 사상을 자신의 윤리적 이념으로서 수용한다. 나아가 오에는 소년 시절 체험했던 공포의 기억을 바탕으로 창작활동에 주력하게 되는데, 이러한 군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전후민주주의 사상의 확립은 「세븐틴(セブンティーン)」(1961)이라는 소설을 통해 재확인된다. 이 작품은 1960년 10월 12일에 발생한, 당시 사회당 위원장 아사누마 이나지로(浅沼稻次郎)의 암살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다. 주인공인 17세의 소년은 암살사건의 피의자였던 야마구치 오토야(山口二矢)라는 인물에서 모티브를 얻어 설정되었는데, 작품 발표 직후 야마구치 소년과 관련 단체에 폐를 끼쳤다는 이유로 게재지인 『문학계(文学界)』에 사과문이 실리기도 한 화제작이었다.

그 내용을 보면, 17세의 주인공 〈나〉는 가정과 학교 그 어느 곳에서도 마음 나눌 이 없는 고독한 존재이다. 삶에 대한 희망과 기대 없이 살아가던 〈나〉는 우연히 한 우익단체 대표의 강연을 듣게 되고, 웬지 모를 감정적 격앙을 맛보게 된다. 그 후 〈나〉는 우익단체에 가입하여, 나 자신이 아닌 천황의 부속물로 살아갈 것을 결심한다. 그리고 좌익단체의 일원을 암살한 후 체포되고, 소년감별소에 수감 중 자살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는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의지를 상실한 전후세대 소년의 비참한 인생 말로를 상징한다. 작자 오에는 작품을 통해 전쟁 당시의 군국주의를 상기시킴으로써, 군국주의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전후세대 소년의 헛된 죽음을 형상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군국주의에 대한 공포의 기억과 반감은, 오에의 전후인식을 형성하는데 큰 작용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의 배경에는 사회적 약자로 존재했던 작자의 입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전쟁과 여성』에서 김현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전쟁에 대한 기억은 사람마다 다르다. 과거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갖고 있지 않다.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위치와 계급에 따라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성별 경험 역시 마찬가지다. 남성과 여성은 성별에 따라

12) 『ナショナルジオグラフィックが見た日本の100年』日経ナショナルジオグラフィック社, 2003, p.140

다른 영역에서 다른 경험세계와 의식세계를 이루고 살아왔다. 그러므로 여성과 남성이 전쟁에서 다른 경험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물론 여성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다. 13)

위의 인용문이 말하고 있듯 전쟁에 대한 기억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지 않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나 여성에게 있어서의 전쟁 체험과 기억은, 전쟁을 일으키고 그 임무를 수행한 남성들의 시각과는 같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전쟁이 전승국인 강자의 논리로, 또 전쟁의 주체자인 남성의 입장에서 서술되어왔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인용문의 발언은 상기해 볼 만한 내용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바라보면, 일본의 주변부인 「산간마을」의 「어린이」라는 사회적 위치를 통해 군국주의의 위협과 공포를 경험했던 오에의 전쟁 체험과 기억을 단순히 유아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여느 문학자보다 일본 사회에서 차별받는 약자와 주변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앞서 서술한 전쟁 체험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재일 한국인, 탈주병, 장애인, 원폭 피해자, 일본 여성과 흑인 점령군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 역내 매점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에 대한 묘사에 이르기까지 일본사회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약자에 대한 관심과 차별에 대한 저항은 오에문학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해의식을 바탕으로 한 전후인식은, 전쟁에 대한 책임에 있어 일종의 면죄부를 얻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탈‘전후’와 ‘현대’의 경계」에서 김영옥은 전후민주주의 문학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구축한 오에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일본 작가의 양심으로 불리는 존재답게 오에 겐자부로는 노벨상 수상기념 강연(1994)에서 애매한 일본인을 신랄하게 비판하였고 이와 같은 기본적인 견해는 오에 겐자부로 문학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준다. 그는 자신을 ‘전후 민주주의 작가’라는 규정을 통해 일본을 넘어 세계로 발신하는 주체로서 인식하고, 그가 일본이라는 지역성에 얽매이지 않고 밖으로 열려있는 자세를 지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전후 민주주의 작가’라는 자기규정은 전쟁을 일으킨 세대와 차별화된 윤리감을 부여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즉 ‘전후’란 이전 시대의 폭력적 공황 상태를 벗어난 지점으로부터, 과거의 비윤리적 행위의 흔적을 내포하면서 과거와 지금을 차별화하는 전략적 용어인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내포와

13) 『전쟁과 여성』 여림언덕, 2004, p.53

차별화의 영역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으로 흔들리는 애매한 개념으로, ‘패전’이라는 연속성처럼 명쾌한 자기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14)

오에는 「전중파(戰中派)」와는 대립되는 용어인, 「순수전후세대」 또는 「전후민주주의 작가」, 「신전후파」라는 개념을 통해 문학자로서의 위치를 구축하였다. 「전략적 용어」라는 인용문의 표현에 대해서는 온전히 동의할 수 없으나, 그가 전후세대라는 표현을 통해 「과거와 지금을 차별화」했다는 사실에는 공감한다. 이러한 사상의 바탕에는 전후사회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더불어, 군국주의에 의한 피해의식이 자리잡고 있음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후인식의 이면에는 전쟁에 대한 도의적(道義的) 책임의식이 부재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의식의 부재는 전후 대미관계에 있어 또 다른 형태의 피해의식을 낳게 된다.

3. 미점령군하의 피해자

패전 후인 1945년부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주권을 회복한 1952년까지, 일본은 미국이 주축을 이룬 연합군 점령하의 세월을 보내게 된다. 그리고 이 때 점령군 지휘하의 대대적인 사회구조 변혁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 중에 미일 양국은 적지 않은 마찰과 갈등을 겪는다. 나아가 미일안전보장조약에 의한 일본의 미 종속화에 대한 위기의식은 1950년대 초반 「민족주의」 논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이러한 분위기는 문학계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중에서도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는 「국민문학론(國民文學論)」(1954)을 통해, 전쟁 중의 군국주의적 「울트라 내셔널리즘」이 아닌 「건전한 내셔널리즘」의 창출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미일간의 갈등은 미점령이 끝난 1950년대 중반 이후에도 이어지는데, 예를 들어 미군기지 확장으로 인한 경찰과 반대 시민들과의 충돌—대표적인 예로 1956년 10월, 수백 여 명의 부상자를 기록한 다치가와(立川) 기지 확장을 위한 강제추방을 들 수 있다—, 주둔 군인들에 의한 성폭행, 살인, 강도 등의 각종 범죄에 따른 일반인들의 피해가 잇따랐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반영한 작품으로 오에의 「인간 양(人間の羊)」(1958)을 들 수 있다.

「인간 양」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주인공 〈나(僕)〉가 버스 안에서 겪은 경험을 다룬 단편소설이다. 〈나〉는 자신의 본의와는 상관없이 버스에 타

14) 「탈'전후'와 '현대'의 경계-오에 겐자부로와 무라카미 하루키를 비교하면서-」 『비교문학』 (36)한국비교문학회, 2005.6, pp.150-151

고 있던 한 외국군 무리의 심기를 건드리게 된다. 이에 대해 외국군들은 〈나〉를 포함한 일본인 승객 몇 명의 바지를 벗긴 후 한 줄로 세워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는, 「양 때리기, 양 때리기, 팡팡」이라는 노래를 불리면서 승객들의 벗겨진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린다. 결국 〈나〉를 포함한 피해자 〈양 들(羊たち)〉은 〈수치심〉과 〈굴욕감〉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이 소설의 내용이다. 또한 작품 속에서는 버스 승객인 일본인을 피해자와 피해를 입지 않은 자로 양분하여, 그 두 집단 사이의 미묘한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 즉 피해를 입지 않은 승객들은 사건현장에서는 방관자로 일관하며 피해자들의 수모를 즐기기까지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피해자인 〈양 들〉에게 낭패감과 수치심을 부가하는 또 하나의 가해자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겠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인간 양」은 외국군으로 상징되는 미점령군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을 담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분명한 사실은 외국군의 위협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 하는 무기력한 일본인의 모습과 그로 인한 〈수치심〉과 〈굴욕감〉의 표현이다. 〈나〉는 외국군에게 당한 수모를 「내 몸 깊은 곳의 굴욕(僕の体の奥の屈辱)」으로 표현하며, 그러한 굴욕적인 모습을 가족들에게조차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나머지 희생자들 역시 〈불의의 병어리(不意の嘔)〉가 되어 버린 채, 자신들이 당한 수모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다. 무엇보다 오에는 〈수치심〉과 〈굴욕감〉이라는 표현을 통해 전후 일본인의 자아를 묘사함으로써, 미점령하의 피해자 내지 약자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미점령군에 대한 오에의 대미 인식은 히로시마 체험을 바탕으로 한 르포르타주 『히로시마 노트(ヒロシマ・ノート)』(1965)를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먼저, 작품 속에서 그는 미국의 「원폭투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하고 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압도적인 악(惡)의 공격에 대해, 전쟁 초반은 인간들의 패배로 끝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의사들은 커다란 핸디캡을 떠안고 있었으며, 결정적일 만큼 뒤떨어져 있었다. 그렇지만 시게토 박사를 비롯한 의사들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아니 굴복할 수 없었다.(「屈服しない人々」『ヒロシマ・ノート』岩波書店, 1965, p.129)

인용문을 통해 오에는 미국의 원폭투하를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압도적인 악의 공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원폭 투하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히로시마 노트』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현대 최악의 페스트(現代の最悪のペスト)」, 「원폭의 악(原爆の悪)」, 「과거에 인류가 만난 적이 없는 괴물(かつて人類が出くわしたことのない怪物)」,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최악의 신(あらふる悪しき神)」 등으로 명시되고 있다. 이에 반해 피폭의 상흔을 끌어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히로시마 사람들의 불굴의 의지는 「선(善)」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 결과적으로, 원폭투하를 기점으로

로 하는 선악(善惡)의 대립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작품에는 한국전쟁 당시, 일본에 주둔했던 미국 기자가 한 피폭자에게 던진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질문이 소개되어 있다. 즉, 「지금 한국에 원자폭탄을 2, 3발 떨어뜨리면 전쟁은 끝날 것이라 생각되는데, 당신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질문의 서술은 결국, 원폭 투하 이후 피폭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반성하지 않는 점령자들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알려진 사실대로 일본은 패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 총사령부(GHQ)에 의하여 점령당하였고, 점령기간중 원폭 투하에 대한 발언은 함구되었다. 1955년에 「제1회 원수폭 금지대회(原水爆禁止大会)」가 개최되기까지, 피폭자들은 오에의 지적대로 「침묵의 10년」을 보내야만 했던 것이다. 작품 속에서는 반성 없는 가해자인 미국인들의 입장과, 침묵의 고통을 견뎌야만 했던 피해자 히로시마 사람들의 삶이 대비되면서 팽팽한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점령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원폭 장해 조사위원회(原爆障害調査委員会)」, 일명 「ABC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원폭 장해 조사위원회」는 원폭 투하 이후 미국에 의해 설립된 피폭 관련 연구기관으로, 치료가 아닌 연구·조사중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ABCC 방문 후, 오에는 다음과 같은 감상을 술회하고 있다.

나는 자료실 문이 연결되어 있는 한 동(棟)의 복도를 걸어 출구를 찾는다. 그 곳은 파일로 정리된 의료차트의 산이다, 닫혀진 문 안 쪽에서는 물 흐르듯 카드 소리가 계속해서 울리고 있다, IBM이 죽은 사람들의 인식표를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중략) 나는 ABCC를 나와 다시 히로시마 시내로 내려가면서 몸서리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저 산 정상에서는 원수폭 금지대회에 관해 그 누구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말 그 어느 누구도, 먼 도시의 사건인 마냥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다……(「広島への最初の旅」 『ヒロシマ・ノート』 岩波書店, 1965, p.31)

「IBM」이라는 기계로 상징되는 가해자 미국은 피폭자들의 고통과 울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들에게 피폭자들은 단순한 연구 조사 대상일 따름인 것이다. 이처럼 감정적 격양이 엿보이는 작자의 감상은, 전후 일본인이 전쟁의 피해자, 희생자, 약자라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창작 배경에는 장애를 지닌 첫 아들의 탄생이라는 개인적 시련과 더불어, 1960년 미일 안전보장조약 조인의 여파, 그리고 베트남전쟁 당시 오키나와가 미군의 출격거점기지(出撃拠点基地)로 사용되고 있던 시대적 정황 등이 맞물려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히로시마 노트』에 나타나는 이러한 오에의 전후인식에 대해, 단노 미쓰하루(団野光晴)는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요약하여 말하자면, 거기에는 중국=아시아에 대한 도의(道義)적 책임의식이 누락되어 있다. 「핵시대의 증일관계」는 또한 「전후세대에 전쟁책임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으나, 『노트』 (『히로시마 노트』의 약칭: 필자)의 내셔널리즘은 마치 이러한 의미에서 「히로시마 이전」이 누락된 「순수전후적(純粹戰後的)」인 것이다. 「히로시마 이전」이 누락된 것은 「전전(戰前)·전쟁 중(戰中)」이 누락된 것이며, 「전전(戰前)」과 「전후(戰後)」와의 사이에 단절 없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세계정세가 누락된 것이다.¹⁵⁾

단노는 『히로시마 노트』 간행에 즈음하여 행해진 중국의 최초 핵실험(1964년 10월 19일)을 거론하며, 이 핵실험에 의해 중국에 대한 일본의 전후 책임의식은 완전히 누락되어 버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역으로, 원폭 피해국인 일본이 중국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취하는 계기가 되어버렸다고 덧붙인다. 이러한 시대적 정황가운데 오에는 「순수전후적(純粹戰後的)」인 전후인식의 태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피해자 일본도의 일본인상(日本人像)을 제시하였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점령군에 대한 피해의식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창작 당시의 시대적 배경뿐 아니라, 미일간의 전후 사후처리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패전국 일본과 전승국 미국이라는 두 나라의 관계에만 모든 초점이 맞추어짐으로써, 전쟁 중에 행해졌던 아시아에 대한 일본인의 침략행위는 표면화되지 못 했다는 점이 그것이다.¹⁶⁾ 미일중심의 전후 처리로 인해 많은 일본인은 전쟁의 해방감과 더불어 미점령하의 굴욕감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히로시마 노트』 역시 이러한 대미의식을 기조로 하고 있다. 오에 스스로도 다분히 감상적이었다고¹⁷⁾ 밝힌 이 작품이 발간 당시 베스트셀러로서 대중적인 관심을 모았다는 사실은,¹⁸⁾ 작자의 전후인식이 일반적인 일본인들의 이해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한편 오

15) 岡野光晴 「『ヒロシマ・ノート』とナショナリズム」 『昭和文学研究』 1999.9, p.49

*인용문 중의 「核時代の日中関係」는 『世界』 (1963.6)에 실린 坂本義和의 논문명.

16) 김준섭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에 관한 고찰」 『국제 정치논총』 (제40집 5호), 2002.12, pp.163-165

17) 오에는 『あいまいな日本の私』 (岩波書店1995, pp.133-134)에서 「『히로시마 노트』라는 책은 감정적(emotional)으로 쓰여졌다고, 지금의 나는 생각합니다. 그때의 나에게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감정을 강하게 어필하여 히로시마에 대해 쓰려고 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성이 아니라, 냉정히, 침착하게, 온화하게 때로는 유머를 품고 사실만을 확실히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 그것도 원폭이라고 하는 대개양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라는 것을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18) 『히로시마 노트』는 간행 직후, 「주간 베스트 셀러즈」에 그 이름을 올렸다. 이는 원폭 관련 작품으로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피폭자들의 실제 체험을 엮은 『原爆体験記』보다도 더 많은 판매 부수를 기록했다고 한다. 또 1965년 6월 26일자 「図書新聞」에서는 「전후사상 관련 필독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주15」의 글, pp.41-43 참조)

에가 피해자 일변도의 전후인식에서 벗어나 가해자로서의 책임의식을 명백히 밝히게 되는 것은 「오키나와」 방문 이후라고 보여진다.

4. 가해자로서의 역사 인식

오키나와 본토 반환이 거론되던 1960년대말, 오에는 오키나와 방문을 통해 얻은 개인적 체험과 감상을 『오키나와 노트(沖繩ノート)』(1970)에 담았다. 당시 그는 민속학적인 시점에서 오키나와의 전통문화에 대한 강한 관심을 표명하였는데, 이러한 관심은 이후 「중심과 주변」이라는 새로운 테마를 생성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필자가 『오키나와 노트』를 통해 무엇보다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태평양전쟁 말기에 이루어진 오키나와전쟁에 대한 작자의 인식이다.

샌프란시스코조약 제3조에서 오키나와를 인신공양으로 내준 뒤, 핵병기에 대한 공포의 사석(捨石)으로 오키나와 민중을,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침묵한 희생양과 같은 상태로 묶어두고 있는 지금까지 본토 정부가 보이는 태도가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오키나와의 핵기지를 분명히 인정하는 성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핵 침부」 반환과 같은 단어가 오가고 있다고 하니 뻔뻔스럽기 그지없을 따름이다) 그 분명한 증거이다. 그리고 「국체수호」를 위해 오키나와 민중이 희생된 태평양전쟁의 종말, 어떠한 적극적인 의미도 가지지 않는 오키나와전쟁의 비참함을 다른 하나의 증거로 내놓을 필요가 있을까? (「多様性にむかって」 『沖繩ノート』 岩波書店, 1970, pp.68-69)

오에는 인용문을 통해 「오키나와 민중의 죽음을 저당 잡혀 목숨을 연명하는 본토 일본인의 삶(沖繩の民衆の死を抵当にあがなわれる本土の日本人の生)」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즉, 1951년에 조인된 샌프란시스코조약 이후 유일하게 미군 점령하에 내버려진 오키나와의 현실을 지적함과 동시에, 오키나와를 단순히 미국에 내어준 일본정부의 이기적인 태도를 꼬집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천황중심의 국가 체제를 지키기 위해 오키나와의 민간인들을 총알받이로 이용했던 오키나와전쟁의 참담함을 서술함으로써, 본토 일본인의 전후책임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오키나와를 희생양으로 삼아 미국의 핵우산 하에서 보호받고 있던 전후의 현실을 감안한 지적이었다.

이렇듯 『오키나와 노트』에서 오에는 오키나와를 둘러싼 본토 일본인의 전후 책임을 날카로운 어조로 비판하는데, 이는 중국의 「난징대학살(南京大屠殺)」에 대한 언급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히로시마 노트』의 「순수 전후적」인 역사인식과는 다분히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에의 전후 책임의식은 1995년 이후의 에세이와 강연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표출되고 있는데, 이는 노벨문학상 수상 직후 이루어진 한국에서의 강연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내가 처음 한국을 방문한 것은 1990년이었습니다. (중략)

우리들 일행의 목적은 「세계는 히로시마를 기억하고 있는가」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시인 김지하씨에게 인터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는 실행되었지만 김지하씨의 발언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는 강한 비판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타이틀이 「세계는 히로시마를 기억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제의 기본적인 성격을 생각해서 「세계는 남경대학살의 희생자 30만을 기억하고 있는가」, 「전쟁의 희생자인 천만 명의 아시아인을 기억하고 있는가」, 「정신대와 강제연행된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는가」, 「원폭피해자를 기억하고 있는가」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 새로운 아시아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다면, 지나간 시대의 역사적인 실수를 청산하고 도덕적인 순결성을 보장하지 않는 한, 아시아의 미래에 참가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한 보장이 없다면 일본은 전 세계의 미래에 참가하여 새로운 아시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希望と恐れとともに」 『日本の「私」からの手紙』 岩波書店, 1996, pp.52-53)

먼저, 왜 오에는 김지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974년, 김지하는 한국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는다. 당시 일본에서는 그의 구명운동을 위해 제일 한국인과 일본의 지식인들이 모여 단식 투쟁을 전개하였는데, 오에도 그 참가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인터뷰 당시 오에는, 김지하가 국가권력에 의해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당사자인 만큼 원폭 투하에 의해 고통당하는 이들의 절망적인 현실을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날카로운 어조로 일본의 전후책임을 되묻는 김지하의 지적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오에가 경험한 예상외의 큰 충격은, 결국 그가 전쟁의 피해자인 아시아인들의 상흔을 추상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도 생각해볼 수 있다. 오에는 김지하와의 만남에서 받은 충격과 자성을 통해, 순수 전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위치와 역할을 숙고하게 되었으리라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추측은 원폭문제에 대한 오에의 입장 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인은 세월과 더불어 개선되었는가(日本人は年とともに改良されたか)」¹⁹⁾에

서 오에는 1994년 국회에서 성립된 「피폭자 원호법(被爆者援護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먼저 그는 「피폭자 원호법」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피폭자들의 오랜 세월을 걸친 노력이 만들어낸 소산물로, 이로 인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여기에서의 긍정적인 성과란, 원폭 반대운동을 전개하면서 일본인이 자주 입에 올린 「세계 유일의 피폭국」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점, 그리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다수의 한국인과 중국인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 희생자에 대한 인식이 생겨난 점을 말한다. 실제로 현재 일본에서는 해외 거주(한국과 중국, 미국, 브라질에 이르는) 피폭자들의 잃어버린 권익을 위한 소송이 전개되고 있는데, 기존의 국내 피폭자 위주의 반핵운동과 비교해 볼 때 괄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피폭자 원호법」에 대한 언급에서 보여지듯, 오에의 시선은 비로소 일본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이야말로 세계 최초의 유일한 원폭 피해국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운동」을 통한 국제적인 반핵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주장했던 『히로시마 노트』에서의 주장과도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기도 하다.

1995년, 일본은 패전 50주년을 맞이했다. 「시대로부터 문학의 테마를 얻었다」고 한 발언이 시사하듯, 오에는 실제로 전후 일본사회의 크고 작은 사건에 소재를 얻어 창작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한 그에게 있어 노벨문학상 수상에 이은 패전 50주년은 「일본과 나」, 그리고 「아시아와 세계에 있어서의 일본」의 입장을 재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1995년 이후의 에세이와 강연집에는 자국중심의 순수전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오에의 강한 의지가 느껴진다.

5. 나오며

오에의 초기작품에는 군국주의와 미 점령군에 대한 약자의식 내지 피해자의식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작자의 전후인식은, 당면한 자신의 전쟁 체험과 기억에 근거하여 순수전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 그 요인이 있을 것이다. 이는 『요코 이야기』의 저자가, 「내가 겪었던 생존의 문제를 다룬 것이지 역사에 대한 것은 아니다」²⁰⁾라고 말한 주장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19) 『日本の「私」からの手紙』岩波書店, 1996, pp.83-84

20) 「미국교민들 ‘요코이야기’ 저자와 역사 논쟁」 『중앙일보』 2007.2.14.

그러나 오에의 초기 작품에 주로 나타나는 이러한 피해의식은, 『오키나와 노트』(1970)를 통해 일종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일본 본토에서의 지상전을 피하기 위해 오키나와를 전쟁의 사석으로 내몰았던 과거사를 인식하고 일본의 전후책임을 지적함으로써, 비로소 전쟁의 피해자였던 오키나와와 아시아 각국의 민중에 대한 이해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해자로서의 전후인식은, 1990년 한국 방문시 김지하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각성을 요구받게 된다. 이후 패전 50주년을 즈음한 각종 강연과 에세이를 통해 가해자로서의 역사인식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전후의 일본 작가들에게 엿보이는 전쟁에 대한 피해의식과 평화주의사상의 공존을 일괄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고찰한 오에의 경우, 순수 전후적인 피해의식을 바탕으로 출발하였으나, 이후 전쟁에 대한 통시적 역사인식을 통해 전후책임을 표명하게 된 문학자라고 평가된다. 달리 말하자면 개인적 체험에 의한 노스텔지어의 「기억」을, 역사적 사실에 의거한 의지적 「기억」²¹⁾으로 전개해 온 문학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1) 오에는 1995년 2월 24일에 있었던 한국의 강연에서 「기억」에 대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밀란 쿤데라의 말을 빌리자면 《권력에 대한 인간의 투쟁은, 망각에 대한 기억의 투쟁과 같다》라고 합니다. (중략)나는 계속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도덕적 청산, 역사적 청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 청산이 완료되는 것은 나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希望と恐れとともに」 「주 19」의 책, p56)

【参考文献】

- 김상준(2005) 「기억의 정치학: 야스쿠니 vs. 히로시마」 『학국정치학회보』 제39집 5호, pp.215-236
- 김영옥(2005) 「탈‘전후’와 ‘현대’의 경계-오에 겐자부로와 무라카미 하루키를 비교하면서-」 『비교문학』 (36집)한국비교문학회, 2005.6, pp.147-166
- 김준섭(2002)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에 관한 고찰」 『국제정치논총』 (제40집 제5호), pp.159-180
- 김현아(2004) 『전쟁과 여성』 여름언덕
- 미즈모토 가즈미(2005) 「히로시마의 평화운동-군사도시에서 평화도시로」 『4·3과 역사』 (제5호), pp.161-193
- 이시카와 마스미(2006) 『일본전후정치사』 후마니타스
- 제임스 L. 맥클레인(2004) 『일본근현대사』 다락원
- 줄고(2006) 「오에 겐자부로의 오키나와 이해」 『日語日文學研究』 (제59집 제2권) 한국일어일문학회, 2006.11, pp.369-384
- 一修孝夫(1997) 『大江健三郎—その文学世界と背景』 和泉書院
- 大江健三郎(1959) 『死者の奢り・飼育』 新潮社
- _____(1961) 「セブンティーン」 『文学界』 文芸春秋, 1961年1月
- _____(1961) 「政治少年死す」 『文学界』 文芸春秋, 1961年2月
- _____(1965) 『ヒロシマ・ノート』 岩波書店
- _____(1970) 『沖縄ノート』 岩波書店
- _____(1991) 『厳粛な綱渡り』 講談社
- _____(1991) 『持続する志』 講談社
- _____(1995) 『あいまいな日本の私』 岩波書店
- _____(1996) 『日本の「私」からの手紙』 岩波書店
- 黒子一夫(1989) 『大江健三郎—森の思想と生き方の原理』 彩流社
- 団野光晴(1999) 「『ヒロシマ・ノート』とナショナリズム—60年代と大江健三郎の問題」 『昭和文学研究』 (39)昭和文学研究会, 1999.9, pp.41-52
- 中村泰行(1995) 『大江健三郎—文学の奇蹟』 新日本出版社
- 渡辺広士(1994) 『大江健三郎』 審美社
- 『ナショナルジオグラフィックが見た日本の100年』 日経ナショナルジオグラフィック社, 2003
- 「いま大江健三郎の小説を読む」 『國文學(解釈と教材の研究)』 (第42巻第3号) 學燈社, 1997

要 旨

日本の戦後文学に見られる被害者意識と平和思想の共存は、第二次世界大戦の被害者であるアジアの人々から見れば理解し難いものであろう。そして本研究で検討した大江健三郎の場合も、このような傾向を表す作家の一人だと思われる。それでここでは、彼の戦後認識がよく反映されていると見られる初期作品をはじめ、『ヒロシマ・ノート』(1965)、『沖縄ノート』(1970)、それから1995年以降のエッセイや講演集を中心に、大江文学における戦後認識とその展開について考察することにした。

まず、初期作品における大江の戦後認識は二つの側面から見る事が出来る。一つは戦中における軍国主義への被害者意識、もう一つは戦後アメリカの占領軍に対する弱者意識である。前者の場合、国家権力というものが社会的な弱者である子供に対してどれ程脅威的であったかという被害者意識が見られる。そしてこのような戦中体験による被害者意識は、戦後のアメリカ占領軍に対する被害者意識へと続いていることが分かる。しかし被害者中心の戦後認識は、戦争に対する道義的責任から逃れていることにその問題点が指摘された。

後に大江は沖縄での体験や韓国の詩人金芝河との出会いなどを通して、戦争に対する責任を認識し始める。特にノーベル文学賞受賞後に書かれたエッセイなどには、このような戦後認識の変貌が明確に示されている。つまり大江の戦後認識は、個人的な体験に基づくノスタルジーの「記憶」から、歴史性に基づく意志ある「記憶」へと展開してきたと言えよう。

キーワード：大江健三郎、軍国主義、戦後民主主義、戦後認識、被害者意識、弱者、純粹戦後、歴史認識

투 고 : 2007. 5. 31
1차 심사 : 2007. 6. 9
2차 심사 : 2007. 6. 30

住 所 : (443-760)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산94-6 경기대학교 일어일문학과
電 話 : 031-249-9115
e-mail : sukoyaka@hanmail.net